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67-2호)

# 여론속의 여輿論論

[2024 대중인식조사]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 02. 07.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저작권 정책

---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1

## 중국에 대한 이미지

### 중국에 대한 이미지 작년에 이어 여전히 '부정적' 다만, '어느 쪽도 아니다' 중립 응답이 전반적으로 상승

지난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본 선거에서 친미, 대만 독립 성향을 지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전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며 “중화민국(대만)이 계속해서 국제 민주주의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총통선거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 불릴 만큼 한 국가의 정치선거 수준을 넘어서 아시아·태평양 국제정세에 영향을 준다는 평가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원칙을 존중하는 기초를 유지하면서 대만과도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들은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기초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2024년 1월 5일 ~ 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중관계와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물었다.

먼저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민주적 vs 권위적’, ‘자유 vs 억압’, ‘정직 vs 정직하지 않음’, ‘위험적이지 않음 vs 위험적’, ‘신뢰 vs 불신’, ‘책임감 vs 무책임’, ‘평화 vs 공격’, ‘친구 vs 적’ 8개 문항으로 묻고,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물었다.

작년에 이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 가량은 중국이 ‘권위적이고(81%, 민주적 2%)’, ‘억압적이며(79%, 자유 4%)’ ‘정직하지 않은(76%, 정직 2%)’ 이미지에 가깝다는 인식이다. ‘위험적(72%, 위험적이지 않음 6%)’, ‘불신(71%, 신뢰 5%)’, ‘무책임(64%, 책임감 4%)’, ‘공격적(64%, 평화 3%)’과 같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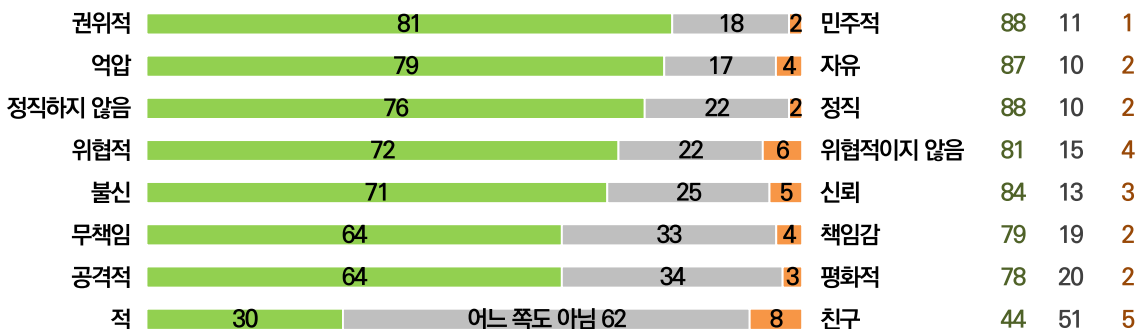
중국이 우리에게 ‘적(30%)’이라는 응답이, ‘친구(8%)’라는 인식 대비 4배 가량 높으나 예외적으로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높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문항 중 유일하게 중도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이다.

작년에 이어 중국에 대한 부정 인식이 압도적이거나, 최소 7%포인트 ~ 최대 15%포인트까지 감소하고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중도 입장으로 소폭 이동했다.

작년에 이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강해, ‘권위적’·‘억압’·‘정직하지 않음’ 등 다만, 부정 이미지가 ‘어느 쪽도 아님’으로 소폭 이동

(단위 : %)

#### 2023년 조사결과



질문: 중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비되는 두 내용 중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쪽을 선택해 주세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성별·연령·이념성향 무관, 전반적으로 중국 평가 '부정적' 보수층, 중국에 대한 부정 인식이 강하고 적대적인 입장

작년에 이어 중국에 대해서 성별이나 연령대,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이다. 특히 본인을 보수층이라고 답한 이들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진보층 대비 높다.

중국에 대한 여러 이미지 평가 중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적'인지 혹은 '친구'인지에 묻는 질문에 유일하게 '어느 쪽도 아니다(62%)'라는 중립적인 입장이 과반을 넘는다. 주관적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과반 이상이 '적도 친구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나, 진보층(69%)의 중도 입장이 보수층(53%) 대비 높다. 반면, 보수층(41%)은 진보층(21%) 대비 중국은 '적'이라는 인식이 20%포인트 높다.

### 성별·연령·이념성향 무관, 전반적으로 중국 평가 '부정적' 보수층, 상대적으로 부정 이미지 강해

(단위 : %)

사례수 (명)	민주적 vs 권위적			자유 vs 억압			정직 vs 정직하지 않음		
	민주적	권위적	어느 쪽도 아님	자유	억압	어느 쪽도 아님	정직	정직하지 않음	어느 쪽도 아님
<b>전체 (1,000)</b>	<b>2</b>	<b>81</b>	<b>18</b>	<b>4</b>	<b>79</b>	<b>17</b>	<b>2</b>	<b>76</b>	<b>22</b>
<b>성별</b>									
남자 (496)	2	83	15	4	81	15	2	75	23
여자 (504)	1	78	21	3	78	19	1	77	22
<b>연령</b>									
18-29세 (161)	3	77	20	1	80	18	0	75	25
30대 (149)	2	82	16	6	79	15	3	78	18
40대 (179)	2	82	16	5	81	15	2	76	22
50대 (195)	1	78	21	5	76	18	3	72	25
60대 (173)	1	81	18	3	77	21	2	72	26
70세 이상 (143)	0	85	15	3	82	15	1	82	17
<b>주관적 이념성향</b>									
진보층 (274)	1	86	14	4	80	16	2	70	29
중도층 (366)	2	76	22	4	74	22	1	74	26
보수층 (323)	1	86	13	3	86	11	2	86	12

질문: 중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비되는 두 내용 중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쪽을 선택해 주세요.

비고: 주관적 이념성향은 11점 척도 응답(진보: 0-4점, 중도: 5점, 보수: 6-10점), 주관적 이념성향 '모름' 응답 제외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보수층, 상대적으로 중국에 부정 이미지 강해**  
**보수층, 진보층 대비 중국은 우리에게 '적'이라는 입장**

(단위 : %)

	사례수 (명)	위험적이지 않음 vs 위험적			신뢰 vs 불신			책임감 vs 무책임		
		위험적이지 않음	위험적	어느 쪽도 아님	신뢰	불신	어느 쪽도 아님	책임감	무책임	어느 쪽도 아님
<b>전체</b>	<b>(1,000)</b>	<b>6</b>	<b>72</b>	<b>22</b>	<b>5</b>	<b>71</b>	<b>25</b>	<b>4</b>	<b>64</b>	<b>33</b>
<b>성별</b>										
남자	(496)	6	76	18	6	68	25	4	65	31
여자	(504)	5	69	26	3	74	24	3	62	35
<b>연령</b>										
18~29세	(161)	7	64	29	1	74	25	1	66	33
30대	(149)	9	69	23	4	75	21	4	70	26
40대	(179)	4	75	21	7	70	24	4	65	30
50대	(195)	4	77	19	5	64	31	5	57	38
60대	(173)	6	70	23	6	70	24	3	62	35
70세 이상	(143)	5	78	17	4	75	21	5	63	32
<b>주관적 이념성향</b>										
진보층	(274)	5	73	22	6	62	32	5	57	38
중도층	(366)	6	68	26	3	68	29	3	59	38
보수층	(323)	4	82	14	5	83	11	3	76	20

	사례수 (명)	평화 vs 공격			친구 vs 적		
		평화	공격	어느 쪽도 아님	친구	적	어느 쪽도 아님
<b>전체</b>	<b>(1,000)</b>	<b>3</b>	<b>64</b>	<b>34</b>	<b>8</b>	<b>30</b>	<b>62</b>
<b>성별</b>							
남자	(496)	4	65	32	11	34	55
여자	(504)	2	62	36	5	26	69
<b>연령</b>							
18~29세	(161)	4	62	34	5	40	55
30대	(149)	3	68	30	6	40	54
40대	(179)	2	70	28	9	28	63
50대	(195)	2	59	39	8	23	69
60대	(173)	2	58	40	13	23	64
70세 이상	(143)	4	66	30	9	25	66
<b>주관적 이념성향</b>							
진보층	(274)	3	65	32	11	21	69
중도층	(366)	2	59	39	9	27	64
보수층	(323)	2	71	26	6	41	53

질문: 중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비되는 두 내용 중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쪽을 선택해 주세요.

비고: 주관적 이념성향은 11점 척도 응답(진보: 0~4점, 중도: 5점, 보수: 6~10점), 주관적 이념성향 '모름' 응답 제외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5 ~ 8

## 한국인이 생각하는 북한, 일본, 미국, 중국 이미지, 중국 이미지는 북한 이미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 일본과 미국에 비해 부정적

최근 1년간 진행한 북한, 일본, 미국, 중국 각각의 이미지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이미지는 북한 이미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수준으로, 부정적 의견이 다수이다. 일본 이미지 또한 부정적이나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나으며, 미국의 이미지는 4개 국가 중 가장 긍정적이다.

### 한국인이 생각하는 북한, 일본, 미국, 중국 이미지 비교 - 최근 1년

(단위 : %)

사례수 (명)	친구 vs 적			자유 vs 억압			민주적 vs 권위적		
	친구	적	어느 쪽도 아님	자유	억압	어느 쪽도 아님	민주적	권위적	어느 쪽도 아님
북한 (1,000)	9	48	44	0	92	8	1	87	12
일본 (1,000)	15	35	50	25	40	34	12	60	28
미국 (1,000)	51	5	44	51	18	31	46	24	30
중국 (1,000)	8	30	62	4	79	17	2	81	18

사례수 (명)	신뢰 vs 불신			평화 vs 공격			책임감 vs 무책임		
	신뢰	불신	어느 쪽도 아님	평화적	공격적	어느 쪽도 아님	책임감	무책임	어느 쪽도 아님
북한 (1,000)	5	74	21	1	84	15	2	76	22
일본 (1,000)	12	63	24	12	45	43	10	62	28
미국 (1,000)	40	20	40	38	18	44	36	18	46
중국 (1,000)	5	72	25	3	64	34	4	64	33

사례수 (명)	위험적이지 않음 vs 위험적			정직 vs 정직하지 않음		
	위험적이지 않음	위험적	어느 쪽도 아님	정직함	정직하지 않음	어느 쪽도 아님
북한 (1,000)	5	83	12	2	78	20
일본 (1,000)	20	52	28	8	69	23
미국 (1,000)	35	28	37	20	30	50
중국 (1,000)	6	72	22	2	76	22

질문: 북한/일본/미국/중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비되는 두 내용 중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쪽을 선택해 주세요.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북한: 2023. 4. 7 ~ 10 // 일본: 2023. 7. 7 ~ 10 // 미국: 2023. 10. 13. ~ 16 // 중국: 2024. 1. 5. ~ 8.

## 2 중국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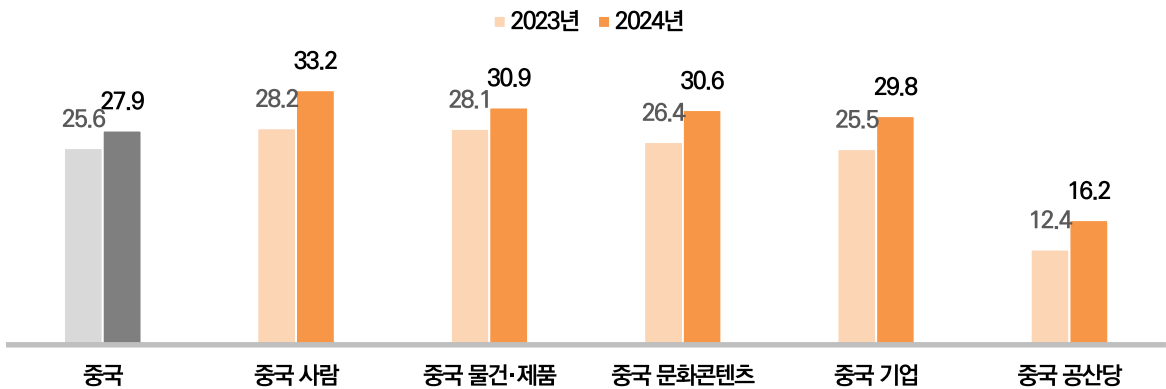
**중국 호감도,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정적**  
**중국 사람(33.2도) > 중국 물건·제품(30.9도) > 중국 문화콘텐츠(30.6도) > 중국 기업(29.8도) >**  
**중국 공산당(16.2도)**

앞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다면 이번에는 중국 사람, 중국의 상품, 중국 문화콘텐츠, 중국 기업, 중국 공산당에 대한 호감도를 세부적으로 확인했다. 다섯 가지 분야에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까지 답하도록 했는데, 0에 가까울수록 비호감, 100에 가까울수록 높은 호감을 의미한다.

'중국 사람'의 호감도는 33.2도로 다섯 가지 항목 중 가장 높다. 이어서 중국 물건·제품(30.9도), 중국 문화콘텐츠(30.6도), 중국 기업(29.8도), 중국 공산당(16.2도) 순으로 호감도가 높다. 중국 공산당을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 호감도(27.9도, 높을수록 호감, [한국리서치 한반도 주변국 호감도 조사\(24년 1월 1주차\)](#)) 대비 최소 1.9도 ~ 최대 5.3도 높다.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가 소폭 상승했다. 특히 중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5.0도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 호감도는 30.0도 안팎으로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 호감도,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정적**  
**'중국 사람' 호감도는 5.0도 상승해 가장 큰 폭 증가**

(단위 : 도)



질문: 다음 각각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비고: 호감도는 0~100점으로 응답(높을수록 호감)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1. 13. ~ 1. 16. // 2024. 1.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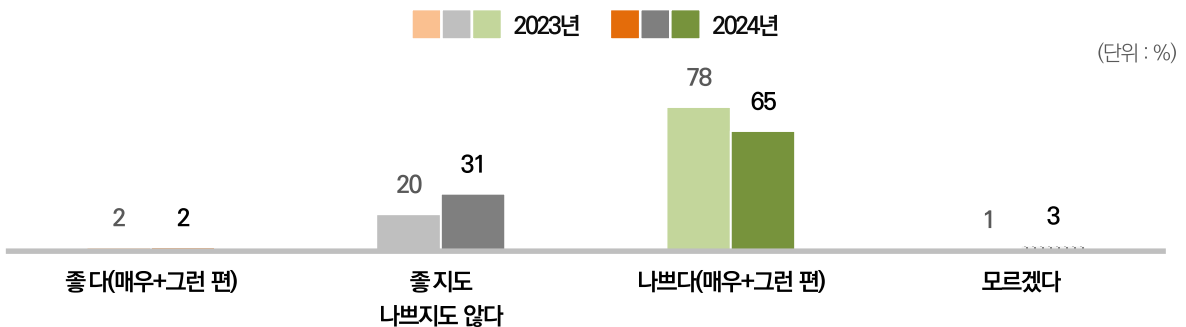
## 한중 관계 인식

### 한중 관계 평가, 작년에 이어 '나쁜 편이다(65%)' 중국 호감도 낮은 집단, 한중 관계 부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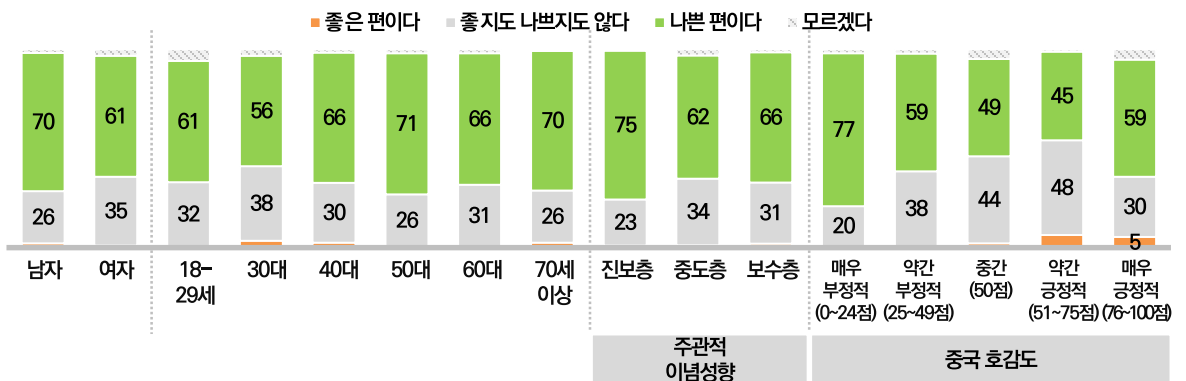
1년 전에 이어 과반 이상은 한중 관계를 '나쁜 편(65%)'으로 평가한다. 한중 관계가 '나쁜 편'이라는 인식은 작년 78%에서 올해 65%로 13%포인트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다수가 한중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한중 관계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11%포인트 상승한 31%이다. '좋은 편이다' 2%, '모름' 3%이다.

성, 연령 등에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주관적 이념성향과 관계 없이 6~70%의 대다수가 한중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진보층의 부정 인식이 7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중국 호감도가 낮은 사람들의 6~80% 가량은 한중 관계 평가도 부정적이다(중국 호감도 '매우 부정적' 77%, '약간 부정적' 59%).

한중 관계, '나쁜 편이다(65%)'  
작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한중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



중국 호감도 낮은 집단, 한중 관계 '나쁜 편이다' 부정 인식 높아



질문: 현재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비고: 주관적 이념성향은 11점 척도 응답(진보: 0~4점, 중도: 5점, 보수: 6~10점) 및 '모름' 응답 제외, 중국 호감도는 0~100점으로 응답(높을수록 호감)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1. 13. ~ 1. 16. // 2024. 1. 5 ~ 8

## 앞으로 한중 관계는 '지금과 큰 차이 없을 것이다(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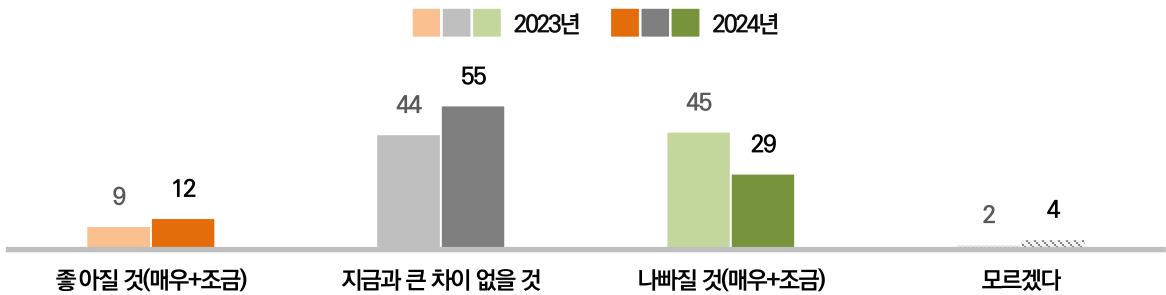
### 남성, 진보층, 현재 한중 관계 부정, 중국 호감도가 매우 낮은 집단에서 향후 전망 부정적

앞서 과반 이상이 현재 한중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향후 전망 역시 지금과 '큰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다(55%). 한중 관계의 현재와 전망 인식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3명 중 1명은 향후 한중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다(29%).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12%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4%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향후 한중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16%포인트 감소하였고,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인식은 11%포인트 늘었다.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 전망이 지금과 큰 차이 없을 것이라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 그중 남성(35%)과 진보층(43%), 현재 한중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41%) 중국 호감도가 매우 낮은 집단(37%)은 향후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40%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향후 1년, 한중 관계 '지금과 큰 차이 없을 것(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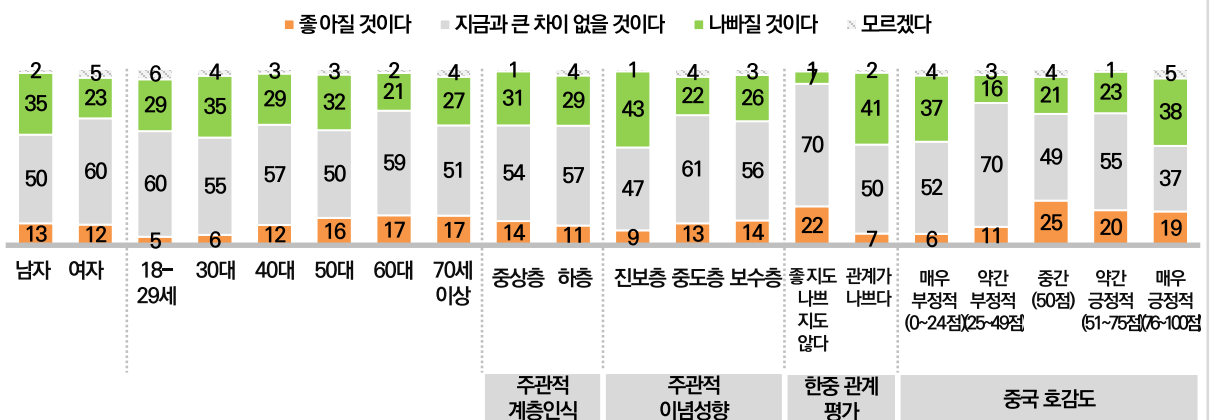
(단위 : %)



#### 향후 한중 관계 '나빠질 것'

##### 남성, 진보층, 현재 한중 관계 부정, 중국 호감도가 매우 낮은 집단에서 향후 전망 부정적

(단위 : %)



질문: 앞으로 1년 동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비고: 주관적 이념성향은 11점 척도 응답(진보: 0~4점, 중도: 5점, 보수: 6~10점), 주관적 계층인식 및 주관적 이념성향의 '모름' 응답 제외, 한중 관계 평가 중 '관계가 좋다'와 '모름'은 응답자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중국 호감도는 0~100점으로 응답(높을수록 호감)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1. 13. ~ 1. 16. // 2024. 1.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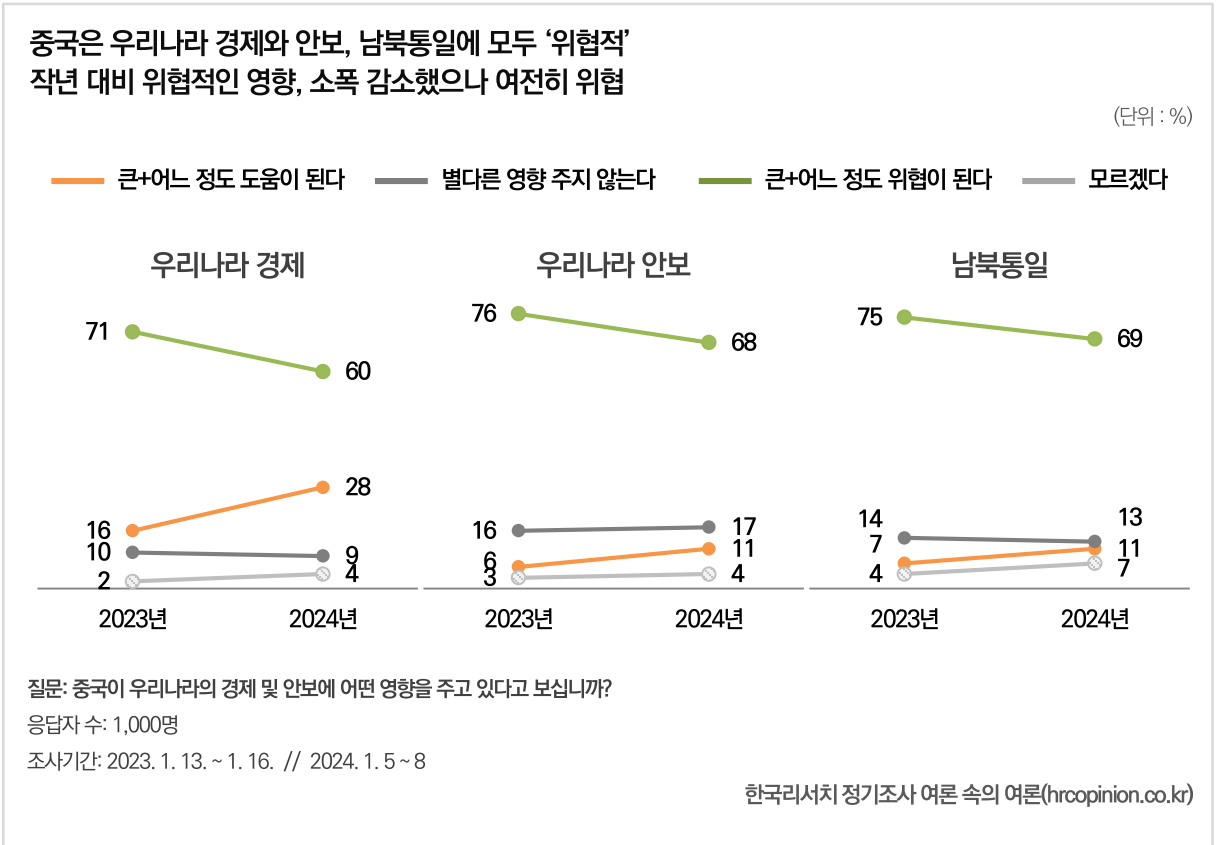
# 4

##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 남북통일에 모두 '위협적' 작년 대비 위협적인 영향,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위협

작년에 이어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 안보 및 남북통일에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과반을 넘는다. 작년 중국이 우리나라에 '위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70% 선을 넘었고, 올해는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6~70%가량은 '위협적'이라는 평가이다(경제 위협 71%→60%, 안보 위협 76%→68%, 남북통일 위협 75%→69%).

4명 중 1명은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28%)'는 인식이다. '위협적(60%)'이라는 평가의 절반 수준이나, 작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안보'나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각각 11%로 매우 낮다.



###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 남북통일에 모두 '위협적' 특히 현재 한중 관계 및 전망 부정평가, 중국 호감도 낮은 집단에서 위협 인식 더 높아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 안보, 남북통일에 위협적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특히 현재 한중 관계 및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중국 호감도가 낮은 집단에서 위협 인식이 더 높은 편이다. 경제 위협에 대해서는 6~70% 가량이, 안보나 통일 관련 이슈에는 7~80% 가량이 위협적이라는 인식을 내비친다. 반면, 향후 1년 간 한중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47%는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 한중 관계 및 전망 부정 평가자, 중국 호감도 낮은 집단은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안보/남북통일에 모두 위협적, 특히 안보와 통일 이슈에 위협 인식 강해**

(단위: %)

	사례수 (명)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안보				남북통일			
		위협이 된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모르 겠다	위협이 된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모르 겠다	위협이 된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모르 겠다
<b>전체</b>	<b>(1,000)</b>	<b>60</b>	<b>9</b>	<b>28</b>	<b>4</b>	<b>68</b>	<b>17</b>	<b>11</b>	<b>4</b>	<b>69</b>	<b>13</b>	<b>11</b>	<b>7</b>
<b>성별</b>													
남자	(496)	57	8	33	2	71	14	13	2	70	13	13	5
여자	(504)	62	9	23	6	65	19	10	6	68	13	10	9
<b>연령</b>													
18-29세	(161)	48	16	27	8	64	24	3	9	66	15	5	15
30대	(149)	59	12	23	5	65	23	8	4	70	15	9	6
40대	(179)	66	8	24	2	74	15	9	2	77	11	8	4
50대	(195)	64	4	30	2	70	10	18	2	65	10	19	6
60대	(173)	64	9	25	2	68	15	14	3	65	17	13	6
70세 이상	(143)	54	5	37	4	66	15	14	6	70	12	13	5
<b>주관적 계층인식</b>													
중상층	(345)	57	9	31	2	67	16	15	2	71	12	13	4
하층	(627)	62	9	26	3	69	18	10	4	69	13	11	7
<b>주관적 이념성향</b>													
진보층	(274)	58	5	35	1	70	14	14	2	73	8	15	4
중도층	(366)	60	11	26	4	64	20	12	4	63	18	11	8
보수층	(323)	64	8	24	4	73	14	9	4	75	10	10	5
<b>현재 한중 관계 평가</b>													
관계가 좋다	(16)	-	-	-	-	-	-	-	-	-	-	-	-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305)	54	17	25	4	57	28	11	4	62	20	12	7
관계가 나쁘다	(653)	65	5	28	2	76	11	11	2	75	10	11	4
모르겠다	(25)	-	-	-	-	-	-	-	-	-	-	-	-
<b>향후 1년 간, 한중 관계 전망</b>													
좋아질 것이다	(121)	40	8	47	4	48	17	28	6	48	19	27	6
차이 없을 것이다	(554)	61	11	25	3	67	22	9	2	69	16	9	6
나빠질 것이다	(290)	68	5	25	2	82	7	9	2	80	7	10	4
모르겠다	(35)	34	9	15	42	39	10	3	47	49	7	3	40
<b>중국 호감도</b>													
매우 부정적(0~24점)	(500)	62	9	25	4	77	13	7	3	76	10	8	6
약간 부정적(25~49점)	(216)	66	6	24	4	67	20	9	5	76	13	5	6
중간(50점)	(173)	48	12	35	6	51	22	20	7	50	19	20	11
약간 긍정적(51~75점)	(78)	51	8	41	0	54	23	20	2	49	20	26	4
매우 긍정적(76~100점)	(34)	62	3	33	2	62	11	25	2	63	13	23	2

질문: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제 및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비고: 중국 호감도는 0~100점으로 응답(높을수록 호감), 주관적 이념성향은 11점 척도 응답(진보: 0~4점, 중도: 5점, 보수: 6~10점), 주관적 계층인식 및 주관적 이념성향의 '모름' 응답 제외, 현재 한중 관계 평가 '관계가 좋다' 및 '모름'은 응답자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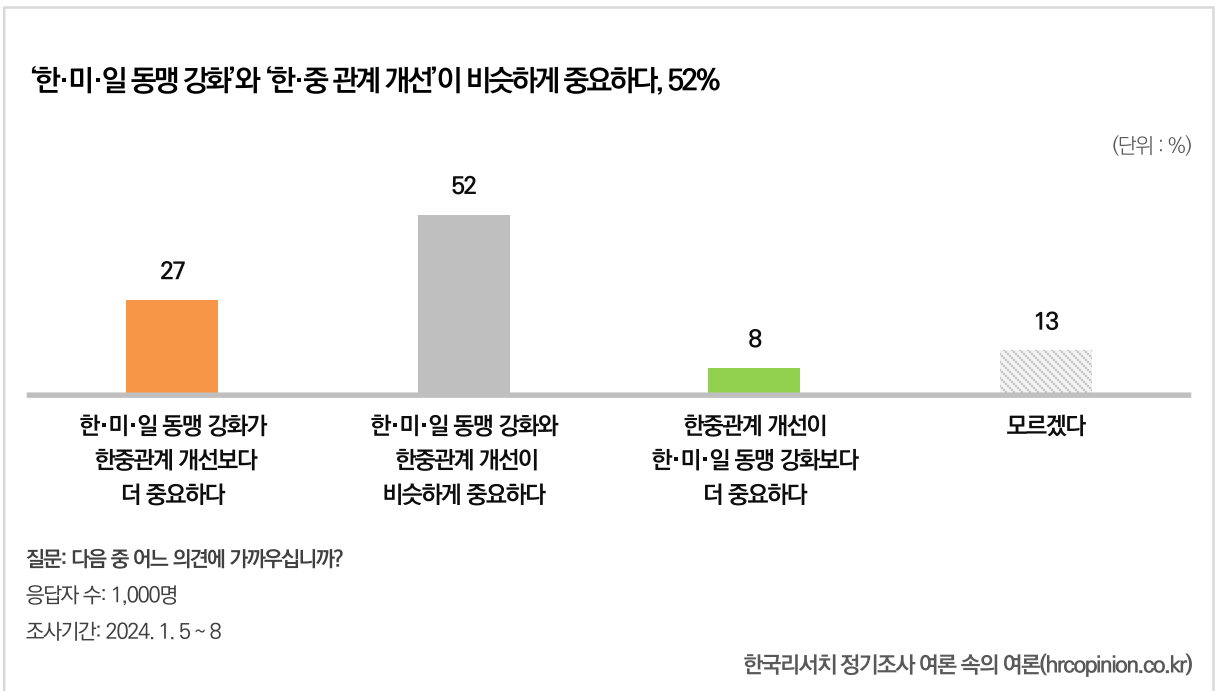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1. 5 ~ 8

## ‘한·미·일 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개선이 비슷하게 중요하다’, 52%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중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소폭 감소하고 중국 사람, 제품, 콘텐츠 등에 대한 호감도도 약간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가 중국과 한중 관계 평가에 부정적이다. 경제와 안보는 한 국가를 구성 및 유지하는 중요한 가치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안보·통일에 모두 위협적이라고 인식한다. 이는 결국 중국 및 한중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미·일 동맹’과 ‘한·중 관계 개선’ 중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2명 중 1명은 ‘한·미·일 동맹 강화와 한·중 관계 개선이 비슷하게 중요하다(52%)’는 인식이다. ‘한·미·일 동맹 강화가 한·중 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 27%, ‘한·중 관계 개선이 한·미·일 동맹 강화보다 더 중요하다’ 8%, ‘모르겠다’는 13%이다. 한·미·일 동맹 강화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에 과반 이상이 동의한다.

과반 이상이 ‘한·미·일 동맹’과 ‘한·중 관계’ 모두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답한 가운데, 18~29세는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한·미·일 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과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 간 큰 차이가 없다. 36%는 ‘한·미·일 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고, 38%는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보수층 역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한·미·일 동맹 강화 중요 46%, 둘 다 비슷하게 중요 42%), 진보층에서는 3명 중 2명(66%)이 ‘한·미·일 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개선이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18-29세와 보수층은 ‘한·미·일 동맹 강화 중요’와 ‘둘 다 비슷하게 중요’ 간 의견차이 크지 않아  
진보층은 66%가 ‘한·미·일 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개선이 비슷하게 중요’**

(단위: %)

	사례수 (명)	한·미·일 동맹 강화가 한중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	한·미·일 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개선이 비슷하게 중요하다	한중관계 개선이 한·미·일 동맹 강화보다 더 중요하다	모르겠다	계
<b>전체</b>	<b>(1,000)</b>	<b>27</b>	<b>52</b>	<b>8</b>	<b>13</b>	<b>100</b>
<b>성별</b>						
남자	(496)	32	50	10	8	100
여자	(504)	23	54	5	18	100
<b>연령</b>						
18-29세	(161)	36	38	4	22	100
30대	(149)	25	47	7	21	100
40대	(179)	28	51	9	13	100
50대	(195)	17	61	12	11	100
60대	(173)	24	59	9	8	100
70세 이상	(143)	38	54	5	3	100
<b>주관적 계층인식</b>						
중상층	(345)	26	59	7	9	100
하층	(627)	29	49	8	14	100
<b>주관적 이념성향</b>						
진보층	(274)	14	66	11	9	100
중도층	(366)	20	54	7	19	100
보수층	(323)	46	42	6	6	100
<b>현재 한중 관계 평가</b>						
관계가 좋다	(16)	-	-	-	-	100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305)	30	49	6	16	100
관계가 나쁘다	(653)	27	56	8	9	100
모르겠다	(25)	-	-	-	-	100
<b>향후 1년 간, 한중 관계 전망</b>						
좋아질 것이다	(121)	31	55	7	6	100
차이 없을 것이다	(554)	23	57	8	13	100
나빠질 것이다	(290)	35	47	9	10	100
모르겠다	(35)	22	16	3	59	100
<b>중국 호감도</b>						
매우 부정적(0~24점)	(500)	34	45	7	14	100
약간 부정적(25~49점)	(216)	20	63	4	13	100
중간(50점)	(173)	19	59	10	13	100
약간 긍정적(51~75점)	(78)	25	58	15	3	100
매우 긍정적(76~100점)	(34)	29	36	25	10	100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비고: 주관적 이념성향은 11점 척도 응답(진보: 0~4점, 중도: 5점, 보수: 6~10점), 주관적 계층인식 및 주관적 이념성향의 '모름' 응답 제외, 현재 한중 관계 평가 '관계가 좋다' 및 '모름'은 응답자 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중국 호감도는 0~100점으로 응답(높을수록 호감)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12월 기준 전국 89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8,392명, 조사참여 1,541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1.9%, 참여대비 64.9%)
조사일시	• 2024년 1월 5일 ~ 1월 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 여輿론論

Hankook | Research

